

29일 Market Index			
↓ 코스피	5663.24	↓ 코스닥	662.68
	(-360.42)		(-43.17)
↓ 금리 (국고채 3년)	3.800	↓ 환율 (원·달러)	1447.35
	(-0.029)		(-15.15)



하이닉스 또 최대실적 영업익 60조 ‘AI 훈풍’

2분기 매출 79조 순익 94조 기록
영업이익률 76%, 순이익률 118%
현금성 자산 18.6조 늘어난 88조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또다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매출 79조 3187억원, 영업이익 60조5426억원, 순이익 93조9226억원의 분기 사상 최대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업이익률은 76%, 순이익률은 118%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AI 서버용 고성능 제품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지난 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고 실적을 다시 넘어섰다. 이에 따라 상반기 누적 매출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관련기사 3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57%, 영업이익은 557%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2조2320억원, 9조2129억원이었다.

실적 호조에 힘입어 재무구조도 개선됐다. 2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88조원으로 전분기보다 33조6000억원 늘었고, 차입금은 18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순환금은 69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회사는 사상 최대 수준의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중장기 투자 여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AI 메모리뿐 아니라 일반 메모리 수요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AI모델 고도화로 메모리 경쟁력의 범위가 개별 제품을 넘어 시스템 아키텍처와 패키징까지 확대되는 만큼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와 고객 공동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시스템 관점의 메모리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HBM4는 올해 2분기 양산 출하를 시작했으며 하반기부터 생산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상반기 샘플 공급을 마친 HBM4E에는 기술 성숙도와 양산 안정성을 갖춘 공정을 적용했으며, 안정적인 공급 능력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HBM 시장 리더십을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또 낸드 부문에서는 선단 공정 전환과 고용량·고성능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 321단 제품은 이미 전체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회사는 연말까지 국내 생산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전분기에 이어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며 “HBM과 AI 서버용 D램, e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늘려 최고의 수익성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쪽방촌 더위 식히는 살수작업

29일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전국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었다. 경남 양산에서는 낮 한때 40.3도까지 기온이 치솟으며 지난 26일 기록한 최고기온 39.3도를 3일만에 경신했다. 부산은 이날 최고기온이 38.8도를 기록하며 1904년 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다. 밤더위까지 심해지며 올여름 들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5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중이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절정에 이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서울 용산소방서 후암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순찰 중 지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살수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은행, 빚장 걸었다… 가계대출 ‘하늘의 별’

5대은행, 총량 제한·규제 지속에
대출 신용 평균 944점 ‘역대최대’
주담대 평균 951점, 4년새 42점 ↑

올해 들어 가계대출 은행 문턱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대출 총량 제한 등 고강도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연체율도 대출 문턱을 높였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도 올해 상반기 신규 공급된 가계대출이 연간 관리 목표치를 뛰어 넘어 하반기에도 은행권 대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가계대출 문턱 ‘역대 최고’

29일 은행연합회의 금융상품 비교공시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 6월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신용점수 평균(은행별 신용점수의 단순평균)은 944점(KCB 기준)으로

잡계됐다. 전월의 943점보다 1점 높아져 2개월 연속 상승했고, 올해 들어는 6개월 연속으로 940점을 넘겼다.

5대은행이 상반기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신용점수 월간 평균은 943.9점으로, 지난해의 연간 평균인 940.8점 대비 2.9점 높아졌다. 이는 관련 공시가 시작된 지난 2022년 8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0년 신용점수제 도입 이후로도 최고 수준이다. 944.1점은 신용점수제 도입 이전에 활용됐던 신용등급제를 기준으로 1등급(942~1000점)에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더 빠르게 높아졌다. 5대은행이 지난 6월에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식 주담대 신용점수 평균은 951.4점으로, 2025년 6월과 비교해선 5.8점, 2024년 6월과 비교해선 15.6점 올랐다. 국내에서 신용점수 관련 공시가 최초

로 시작된 2022년 7월의 신규 주담대 신용점수 평균은 909.4점이었는데, 약 4년여 만에 대출 문턱이 42점이나 높아졌다.

◆ ‘고강도 규제’로 가계대출 억제

최근 대출 문턱이 높아진 배경은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한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총량 규제를 비롯한 고강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매년 경제 상황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해 은행별로 대출 총량의 증가를 제한한다.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2010년대 중후반에는 통상 전년 대비 5~6% 수준으로 관리됐지만, 지난 2024년부터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기준이 엄격해졌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1.5% (4조3363억원) 증가라는 엄격한 기준이 제시됐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사상 첫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

코스피 5.98% 하락한 5663.24
장중 12% 폭락, 5300선 내주기도

‘1만피’ (코스피 1만 포인트)를 바라던 코스피가 5.98% 폭락하며 ‘검은 수요일’을 맞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0.42포인트(5.98%) 내린 5663.24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2.63% 폭락한 5262.77을 기록하며 5300선을 내주기도 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하루만에 260조원이 증발했다.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가총액 총합은 5041조원에서 턱걸이 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 일시 정지)가 발동됐는데,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5.23% 급등해 87.79까지 치솟았다.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18% 넘게 급락하며 시가총액 1000조원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다. 삼성전자 역시 13% 급락하며 한때 19만원 선을 내주기도 했다. 이후 다소 반등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5.23%, 9.61% 하락한 20만8500원, 140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개인은 문자마 투매에 나서면서 1조9700원 순매도했다. 외국인 이날도 반도체 중심으로 차익실현을 이어가며 1조2337억원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3조1603억원가량 순매수하며 지수 하방을 방어했다.

이날 코스닥 또한 6.12% 하락한 662.6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이 7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5.8원 내린 1446.7원(오후 3시30분)에 거래를 마쳤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K-비만치료제, 차세대 기전 승부수

근손실 막고 장기 보호, 복용편의 개선
셀트리온·대원제약 ‘4중 작용제’ 개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식욕 억제와 체중 감량을 넘어 근육 손실을 막고 대사 장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차별화된 기전과 체형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4가지 수용체에 동시 작용하는 ‘4중 작용제’, 복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경구용 치료제’ 등이 핵심 승부수로 부상하고 있다.

2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면, 셀트리온은 신약개발 포트폴리오를 확대 구축하며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4중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CT-G32’을 확보했다.

비임상 시험에서 CT-G32는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 중인 3중 타깃 작용제 대비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와 근육 등 제지방 보존 효과를 입증했다. 올해 안에 비임상 시험기준(GLP) 독성 시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2027년 2월 임상1상시험계획(IND) 제출 완료, 같은 해 2분기 내 첫 환자 투약 등 로드맵도 구체화하고 있다.

대원제약도 팜어스바이오사이언스와 ‘DW4321’을 공동 개발하며 4중 작용제

시장 도전장을 내밀었다. DW4321은 기존 GLP-1, GIP, GCG 기전에 ‘가스트린’ 수용체 작용을 결합한 차세대 파이프라인이다. 지방 감소량 대비 근육량 비율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한편, 체장 베타세포 복구 및 신장 SGLT2 억제라는 추가적인 기전을 규명해 대사 질환 치료제로 차별화하고 있다.

한미약품 역시 비만치료제 개발을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 연구로 확장한다. 올해 첫 국산 비만 치료제 발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 ‘에페’의 경우에도, 비만약으로 출시되는 데 이어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김민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비현실적…쟁점 키우는 것 옳지 않아” /사진 뉴시스
▲與 김현정, ‘쿠팡 보고서’ 반박 자료집 미 하원 의원들에 전달

▲한 총리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단속…추가 대책도 미리 강구”
▲조국혁신당 “조 의장, 아니 땀 굴뚝에 연기 피우는 격…국민 의구심은 당연”

▲국회 복지위, 민주 서영석·국힘 백종헌 간사로 선임
▲정점식, 사상 초유 연이틀 양시장 서킷브레이커에 “무능·무책임 김용범 즉각 경질해야”